

코로나19 관련 특별 대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 의료진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전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요약문

전 세계적 질병 확산의 현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특별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신자들에게는 전대사가 수여된다. 보건 당국의 명령으로 병원이나 자택 격리 상태에 놓여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미사성제의 거행이나 묵주기도 또는 십자가의 길이나 다른 형태의 신심 실천에 영적으로 하나 될 때에, 또는 적어도 신경과 주님의 기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경건한 간구 기도를 바칠 때에, 전대사를 받게 된다. 이때에, 하느님을 믿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련을 봉헌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고 하신 거룩한 구세주의 말씀에 따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본받으며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바이러스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 종사자와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전대사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내사원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전염병 확산의 종식,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 주님께서 당신께로 부르신 이들의 영원한 구원을 간구하고자**, 성체 조배나 적어도 30분 이상의 성경 봉독, 또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이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을 채울 때에 가까이 전대사를 수여한다.

교회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고 노자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인들의 통공에 힘입어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 드린다. 또한 **임종의 순간에 놓인 신자들이** 올바른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 습관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바치기만 했다(이러한 경우에 전대사에 요구되는 세 가지 일반 조건은 교회가 채워 준다.), 교회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이러한 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상이나 십자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12항 참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무기한 중단

교구는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현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에 맞춰 4월 6일부터 미사를 재개하도록 추가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안내 공문 및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31일, 학생들의 등교를 무기한 연기하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구는 미사 재개의 어려움과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4월 1일 임시 사제평의회를 비상소집 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합니다.
2. 미사 재개를 전제로 했던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취소됩니다. 단, 개별고백을 통한 부활 판공성사는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까지 유효합니다.
3. 성유축성미사는 사제평의회 위원만 참석하도록 합니다.
4. 성주간 전례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가톨릭평화방송(생방송, 유튜브)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96년 4월19일 신인균 요셉 신부(91세)
- 2003년 4월18일 한희동 그레고리오 신부(68세)

가톨릭평화방송TV 주님 부활 대축일 특별 생중계

- ▶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
명동대성당 미사(정오 / 재방송 오후 8시)
바티칸 미사(오후 4시 45분 / 재방송 오후 11시)
- ▶ 평일 미사
TV 오전 6시, 9시 / 정오 12시 / 오후 6시, 9시20분
라디오 매일 오전 5시, 오후 6시5분
유튜브 'TV 매일미사' 검색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서울주보

